

第4回 日韓青少年交流 「韓国語スピーチコンテスト」

12月16日(土)ひろしま国際センター「交流ホール」において行われた第4回日韓青少年交流「韓国語スピーチコンテスト」に2年生の竹内玲香さんが出場しました。中学生4名、高校生20名が参加し、そのうち中学生2名、高校生8名が入賞となり、その一人に竹内玲香さんが選ばれました。入賞者には副賞として3月下旬の韓国旅行が与えられました。



韓国語スピー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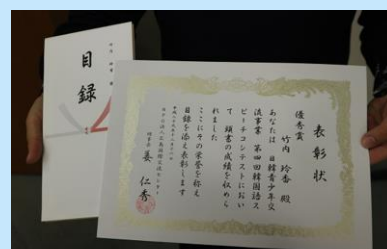
理事長挨拶



表彰式



竹内玲香さん



賞状と目録

국제교류의 매력

히로시마현립 히로시마미나미고등학교 2학년
다케우치 레이카

안녕하세요. 저는 미나미고등학교 2학년 다케우치 레이카라고 합니다.

갑작스런 질문입니다만 여러분은 한국이라고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드라마? k-pop? 영토문제?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말도 있듯이 여러가지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갖고있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현재와 과거에서 전혀 다릅니다.

지난해 저는 한국의 이미지가 크게 달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학교가 주최한 국제교류에 참가한 것입니다. 미나미고등학교는 한국에 자매학교가 있습니다. 저는 그 자매학교 학생집에서 5일간 홈스테이를 하면서, 한국 문화등을 배웠습니다. 실은 참여하기 전에 저는 조금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국인은 일본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참가 해 보니 한국 학생들, 선생님, 홈스테이의 가족들은 저희들을 아주 따뜻하게 맞아 주시고 친절히 대해 주셨습니다. 특히 호스트 교실에서 교류한 것이 지금도 인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 교류에서는 한국의 전통적인 음식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호스트 교실의 여러분들은 손짓 몸짓으로 열심히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시고 더듬거리는 일본말로 많이 지도해 주었습니다. 또 교실 칠판에는 일본어 메시지가 쓰여져 있어서너무 기뻐했습니다.

이 국제교류에서 한국의 문화를 배우는 동시에, 한국사람들 중에는 일본을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한국의 학생들로부터 일본과 일본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다는 감상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문화를 배울 뿐만 아니라 이미지까지 좋게바꿔주는 한일국제교류에 깊은 매력을 느끼게 됐습니다. 또 두 나라 사이에 있는 현실을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가지 형태로 한일교류에 적극 참가하며 한국어를 깊숙히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래, 더욱 더많은 분들이 한일교류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그 매력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国際交流の魅力

広島県立広島皆実高等学校 2年

竹内 玲香

こんにちは。私は皆実高校2年の竹内玲香です。

突然ですが皆さんは韓国と聞いてどの様なことを思い浮かべますか？ドラマ？k-pop？領土問題？近くて遠い国といわれていることもあり、さまざまなイメージが出てくる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私は韓国に対するイメージは今と昔では全く違います。

昨年私は韓国のイメージが大きく変わった経験をしました。それは学校主催の国際交流に参加したことです。皆実高校には韓国に姉妹校があります。私はその生徒の家に5日間ホームステイをして、韓国の文化などを学びました。参加する前の私は少し不安を感じていました。韓国人は日本のことをよく思っていない人が多いのではないかというイメージがあったからです。しかし実際に参加してみると、韓国の学校の生徒、先生、ホームステイ先の家族の方はとても温かく迎え入れて下さり、親切にして下さいました。特にホストクラスで交流したことが印象に残っています。その交流では韓国の伝統的な料理を一緒に作りました。ホストクラスの皆さんは身振り手振りで一生懸命に作り方を教えてくれたり、片言の日本語でたくさん話しかけてくれました。また教室の黒板には日本語でメッセージを書いてくれていて、とても嬉しかったです。

この国際交流から韓国の文化を学ぶと同時に、韓国人の中には日本のことを好きでいてくれる方も多くいることを知りました。また韓国の生徒の方から日本や日本人に対するイメージが変わったという感想を聞きました。

このようにお互いの国の文化を学べるだけでなく、イメージまでもいいものに変えてしまう国際交流に魅力を感じました。また自分の目で確かめることの大切さを学びました。だから、これからも色々な形で日韓交流に積極的に参加し韓国の文化や韓国語を深く学んでいきたいです。そして将来、もっとたくさんの方に日韓交流に参加してもらえるよう、その魅力を伝えていきたいで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